

CEO Information

2006.3.22 (제545호)

글로벌 R&D센터의 유치와 활용 전략

목차

요약

- I. 한국의 글로벌 R&D센터 유치 현황
- II.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특성
- III. 평가와 유형별 전략

작성 : 복득규 수석연구원(3780-8168)
seribok@seri.org
임태운, 임영모 수석
감수 : 윤종연 연구위원(3780-8160)
joyoon@seri.org

《 요약 》

기술과 인재, 시장을 찾아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도처에 R&D센터를 설립하는 R&D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R&D센터의 유치를 통해 최신 기술과 지식을 이전받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도 동북아 R&D 허브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유치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5년 8월말 현재 898개의 R&D센터를 유치하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R&D센터가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R&D센터들은 한국 대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영세하고, 기초연구보다 한국시장용 제품개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와 제약과 같이 한국이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에는 진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들 R&D센터와 한국의 기업·기관들과의 기술 협력이나 교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서, R&D센터 유치의 가장 큰 목적인 최신 기술·지식의 이전이나 한국의 혁신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센터 유치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탄총방식의 量的 유치전략을 조준사격방식의 質的 유치·활용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국이 집중적 유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글로벌 R&D센터는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연구소(Center of Excellence)들이다. 소비시장의 규모에서는 중국을 따라 갈 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대기업의 수요와 우수한 인적자원 및 테스트베드 기능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 일변도에서 벗어나 파급효과까지 염두에 두는 시각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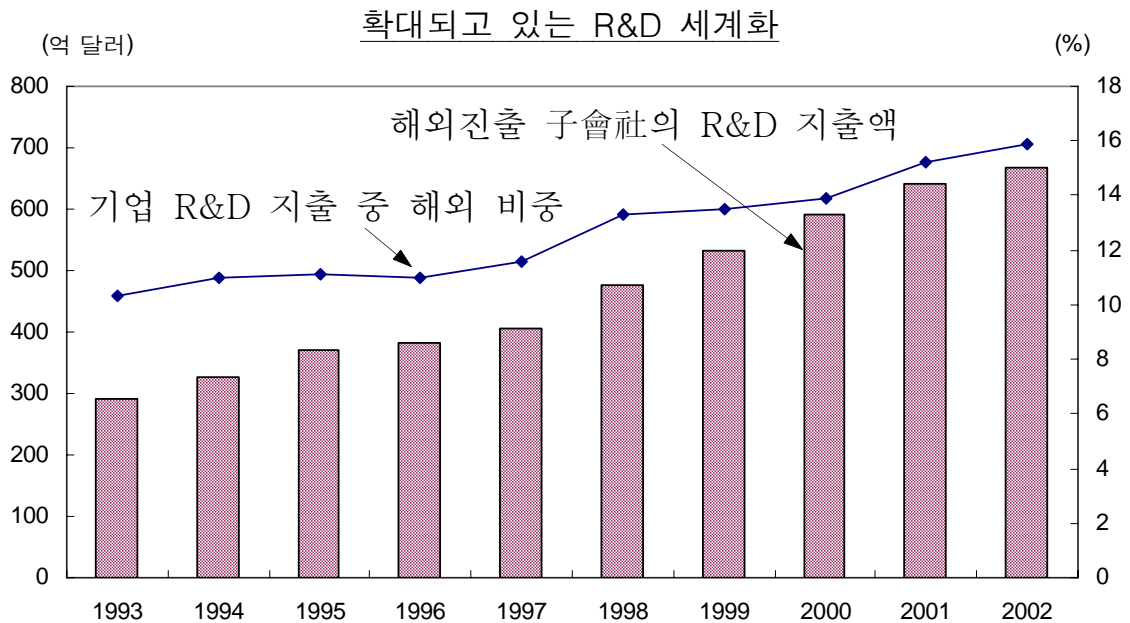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의 高低를 기준으로 산업유형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유치·활용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유형은 반도체와 LCD와 같이 한국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서 글로벌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誘因이 충분한 분야이다. 따라서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기술수준은 높지 않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와 기계 등의 분야로서, 현재는 개발 중심의 소규모 R&D센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세계적 수준의 R&D센터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Set업체의 동북아 개발거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련된 R&D센터들이 집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제약 등 기술수준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유인이 거의 없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유치 우선 전략이 시급하다.

I. 한국의 글로벌 R&D센터 유치 현황

R&D 세계화와 세계각국의 유치경쟁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Market)과 기술(Technology) 및 인재(Talent)를 찾아 전 세계에 R&D센터를 설립

- 글로벌 기업의 해외진출 子會社들의 R&D 지출액이 1993년 290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670억 달러로 2.3배 증가
- R&D 지출에서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10%('93) → 16%('02)
- 최근에는 개도국,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대거 진출
- 거대 시장과 우수 인력을 갖춘 중국에는 P&G, MS, IBM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750여 개에 달하는 R&D센터를 운영중¹⁾



주: 전세계 기업 R&D 지출의 99%(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30개국 대상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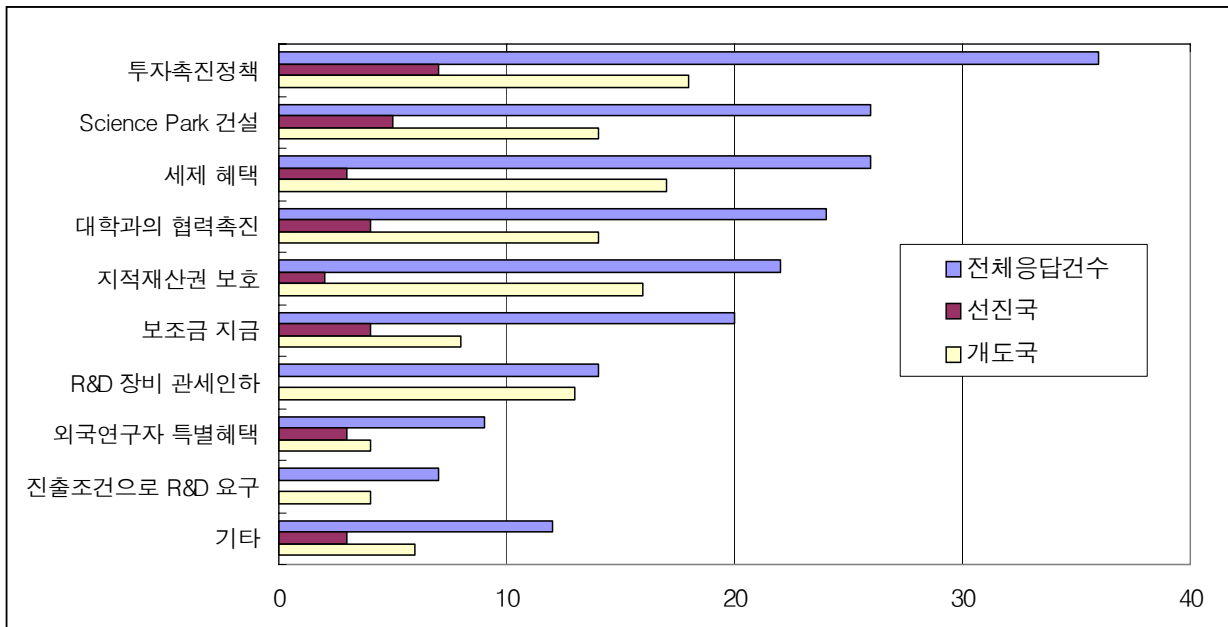
¹⁾ *The Wall Street Journal*, "China Becomes R&D Magnet", 2006.3.14

□ 세계 각국은 글로벌 R&D센터의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

-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도 다양한 유치정책을 시행
 - 최신 기술과 지식 이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기대
- 일부 국가는 파격적인 유치조건을 제시
 - 싱가포르는 바이오 관련 해외연구자 유치에 20억 달러 지출 계획
 - 인도 방갈로지방은 해외거주 자국민 35,000명을 역 이민으로 유치
 - 일본은 아시아 인재들의 일본 유치를 위한 '아시아인재기금'을 창설

세계 각국의 R&D투자 유치정책

(단위: 응답 건수)



주: 84개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46개국 R&D 투자유치기관의 복수응답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한국도 적극적 유치정책 추진으로 실적 증가

□ 한국도 동북아 R&D 허브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유치정책을 추진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기술이전촉진법 등을 통해 부지확보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

- 유치기관으로 2003년 'Invest Korea'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²⁾를 설립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대덕 R&D특구 등을 지정

동북아 R&D허브 전략

- ▷ 세계 일류의 해외 연구기관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창조형 국가혁신체계 구현에 기여
 - ▷ 세부 추진 전략
 -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적극 유치
 - 한·중·일 3국의 과학기술협력체 구축 및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추진
- (자료: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 2005)

□ 2005년 8월말 현재 898개의 R&D센터³⁾를 유치하여 **량적으로는 상당한 실적을 보임**

- 중국이 유치한 글로벌 센터 수가 750개⁴⁾임을 감안할 때 한국이 유치한 R&D센터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수준
 - 특히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전체의 60%인 525개를 유치
- 2005년 12월에 열린 제2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06년 41개의 해외 R&D센터 유치를 목표로 설정⁵⁾

한국의 글로벌 R&D센터 유치현황

외국인 지분율	유치시기		계
	'97년 이전	'98년 이후	
10% 미만	92	119	211
10~50% 미만	167	248	415
50~100% 미만	54	78	132
100%	60	80	140
계	373	525	898

자료: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 2005년.

²⁾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³⁾ 투자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를 대상

⁴⁾ 중국의 유치건수는 Wall Street Journal (2006.3.14) 참조. 단, 외국 R&D센터에 대한 양국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⁵⁾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에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이제는 內實을 다져야 할 시점

- 동북아 R&D 허브전략의 구현 및 글로벌 R&D센터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적인 확장보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
- 글로벌 R&D센터 유치의 기대효과가 실제로 발휘되는지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 현재까지는 유치 위주의 정책운용으로 R&D센터의 활용이나 국가경제 기여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
 - R&D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R&D 투자 중 외국 부담 비중은 0.5%에 불과('04년)⁶⁾
 - 2000년 이후 유치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폐쇄 연구소가 늘어나고 있어 유치 전략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됨
 - 유치 건수: 176('00) → 138('01) → 92('02) → 62 ('03) → 32('04)
 - 2004년에는 폐쇄 건수(42)가 설립 건수(32)를 초과
 - 국내에 진출해 있는 R&D센터들의 운영 실태 및 현황 파악이 필수적
 - 글로벌 R&D센터 유치의 기대효과는 진출 이후의 구체적인 R&D 활동의 속성이나 규모에 따라 좌우됨

글로벌 R&D센터 유치 및 진출의 기대효과

	이득	손실
현지국 (Host coun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기술·지식이전 · 인력 양성과 훈련 · 국가혁신체계의 구조개선 · 산업구조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유출(brain drain) · 기술 유출 · 기술개발의 주도권 약화
본국 (Home coun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효율성 제고 · 역 기술이전 ·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공동화 · R&D 관련 직업 감소 · 기술 유출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⁶⁾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2005

II.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특성⁷⁾

1. 한국 대기업의 부품·소재 수요가 진출 誘因

- 완제품 개발보다는 한국 대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개발 대상 품목은 부품이 50%로 가장 많고 소재, 산업용 완제품이 각각 31.6%와 10.5%를 차지⁸⁾
 - 일반소비재를 연구개발 대상으로 하는 연구소는 6.6%에 불과
 - R&D센터의 진출이 필요한 까닭은 한국 기업의 주문사항에 따라 부품이나 소재의 성능과 규격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연구대상 품목

(단위: 개, %)

품목	소재	부품	완제품		서비스
			산업재	일반소비재	
센터 수 (비중)	24 (31.6)	38 (50.0)	8 (10.5)	5 (6.6)	1 (1.3)

- 국내 대기업의 수요가 외국기업의 진출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나 대만과 차이
 - 대만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은 대기업 수요보다 현지 중소기업의 신속한 개발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⁹⁾

⁷⁾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이 10% 이상인 연구소 816개 가운데 금융자본의 단순투자자와 폐업 등을 제외한 407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2005년 9~11월 간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6개의 표본을 수집하였음. 76개 표본은 진출업종과 출신국가 및 규모에서 407개의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⁸⁾ 407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분류한 자료에서도 부품·소재 및 산업재가 8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

⁹⁾ Shin-Horng Chen,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Global R&D Strategies: the Case of Taiwan,"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R&D Conference("R&D Interplay in Northeast Asia"), February 24,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중국의 경우 12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시장을 노리고 진출

산업재용 R&D투자를 확대하는 지멘스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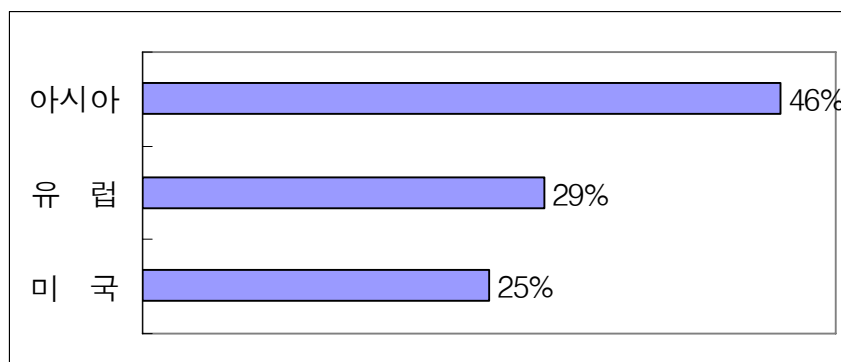
- ▷ 1960년 전후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 지멘스는 공장 자동화 설비, 자동차부품, IT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R&D분야를 확대
 - 한국의 주력산업인 IT,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의 거대시장과 우수인력이 R&D 투자확대의 동인
 - 종업원 2,800명 중 25%인 700명이 R&D 인력이고, 연매출의 5~7%를 R&D 활동에 투자

자료: Dr. Horst J. Kayser, "R&D Activities of Siemens in Korea",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R&D Conference("R&D Interplay in Northeast Asia"), February 24,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한국의 부품 및 소재산업의 취약성을 대변하는 현상

- IT와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부품·소재 수요가 증가
- 그에 비해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¹⁰⁾
-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일본기업들이 많이 진출함에 따라 글로벌 R&D센터의 출신지역도 아시아 비중이 가장 높음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출신지역



¹⁰⁾ 반면 일반소비재시장은 한국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한국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진출매력이 높지 않음

2. 영세규모로 단독진출

□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R&D센터의 평균 연구원 수는 35명 수준

- 특정분야의 부품·소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
- 연구원 수가 20명 이하인 연구소 비중이 전체의 60.5%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규모

(단위: 개, %)

구분	10명 이하	11~20명	21~50명	51~200명	201~500명
센터 수 (비중)	28 (36.8%)	18 (23.7%)	20 (26.3%)	8 (10.5%)	2 (2.6%)

□ 외환위기 이후 단독설립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며 역사도 일천

- 단독설립이 68.8%로 가장 많으며, 합작형태로 진출한 경우가 19.7%이고 국내 기업을 인수한 경우는 10.5%
- 외환위기 이후에 진출한 연구소가 많아 설립연수가 10년 이하인 경우가 53.9%를 차지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설립연수

(단위: 개, %)

설립 연수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센터 수 (비중)	20 (26.3%)	21 (27.6%)	17 (22.4%)	10 (13.2%)	8 (10.5%)

3. 유치희망 분야와 진출 분야의 불일치

기술이전이 필요한 취약분야에는 진출 미미

- 글로벌 R&D센터들은 한국이 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보다 시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
-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와 제약 등의 분야에는 진출건수가 미미
 - 대신 한국 대기업의 부품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와 기계(자동차 포함) 분야에 집중하여 진출
 - 한국 대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화학과 재료분야에도 다수 진출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진출 업종

(단위: 개, %)

업종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화학	재료	섬유	제약 바이오	기타
센터 수 (비중)	22 (28.9)	22 (28.9)	15 (19.7)	7 (9.2)	1 (1.3)	1 (1.3)	8 (10.5)

- 진출시 고려하는 주요요인은 국내 시장(부품·소재)의 크기와 기존 공장이나 판매조직의 유무

- 순수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이나 생산 지원이 주목적임을 시사

한국 진출시 고려 요인

순위	입지 고려 요인	중요도 평가
1	한국 시장의 크기	3.87
2	한국 내 공장·판매조직 보유 여부	3.74
3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3.50
4	한국 연구 인력의 수준	3.49
5	한국 연구 인력의 인건비	3.37

주: 중요도는 1(낮음) - 5(높음)

연구(research)보다 개발(development)에 치중

□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들은 기초연구보다 개발이 주업무

- R&D 활동 가운데 기초연구의 비중이 10% 이하인 경우가 48개로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
- 50% 이상의 업무를 기초연구에 할당하는 연구소는 2개에 불과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기초연구 수행현황

(단위: 개, %)

기초연구 수행비율	전혀 수행하지 않음	1~10%	11~20%	20~50%	50% 이상
센터 수 (비중)	16 (21.1)	32 (42.1)	17 (22.4)	9 (11.8)	2 (2.6)

- 최신 기술과 지식 및 관리기법을 이전해줄 수 있는 해외인력 비중이 미미한 것도 같은 맥락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해외인력 비율

(단위: 개, %)

해외인력 비율	2% 미만	2~5%	6~10%	10% 초과
센터 수 (비중)	59 (77.6%)	7 (9.2%)	6 (7.9%)	4 (5.2%)

□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미진하여 특허출원도 매우 부진

-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들은 연평균 3건 정도의 특허를 등록하고 있고, 3년간 특허 등록 건수가 5건 이하인 경우가 68.4%에 달함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특허등록 수(2003~2005)

(단위: 개, %)

특허등록 건수	0	1~5	6~19	20~50	50 이상
센터 수 (비중)	17 (22.4)	35 (46.1)	15 (19.7)	4 (5.3)	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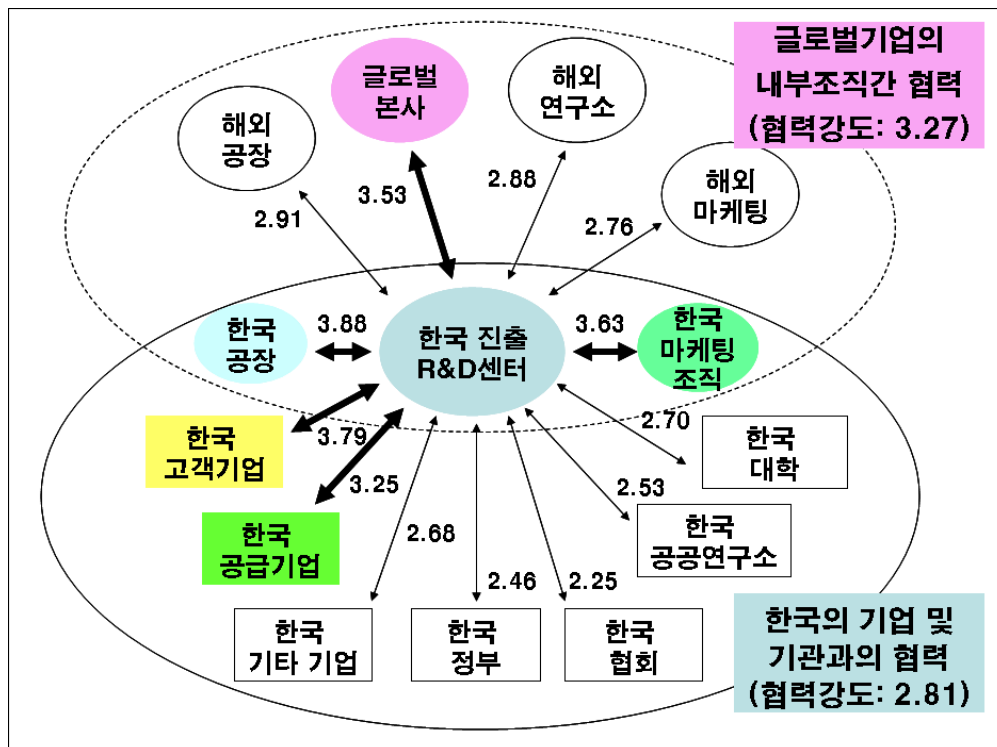
4. 미미한 국내 파급 효과

국내 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진

□ 글로벌 R&D센터와 한국의 기업·기관들과의 연계·협력 활동이 미진

- 글로벌 R&D센터 스스로가 한국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나 협력 수준이 낮다고 평가
 - 5점 척도로 한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강도를 설문한 결과 2.81의 낮은 평가가 나옴
 - 이에 비해 본사 등 글로벌 기업의 내부조직과 협력하는 강도는 3.27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협력 강도가 낮다는 것은 글로벌 R&D센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의 국내 이전효과(spillover)가 미흡함을 의미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협력과 연계 강도



주: 화살표 옆의 숫자는 5점 척도로 평가한 연계·협력의 강도

- 그나마 연계·협력강도가 높은 것은 한국의 고객기업(3.79)과 공급기업(3.25)인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R&D센터가 한국 기업의 부품·소재 수요를 보고 진출하고 한국에서 일부 부품·소재를 조달하기 때문

現地 大學과 협력하는 글로벌 기업들

- ▷ MS는 아시아 각국의 대학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 R&D 활동을 전개
 - 중국의 칭화대학 및 홍콩과학기술대학 등과 연구개발협력, 커리큘럼개정, 인재양성 등에서 협력
- ▷ 인텔은 2005년 세계 각국의 대학과 25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 ▷ 브라질 상파울로의 캄피나스(Campinas)대학은 300건 이상의 협력사업을 전개
 -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 모토롤라, HP, 컴팩, 노바티스, 몬산토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참여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협력과 연계의 주요 형태는 공동연구와 정부과제 참여

- 전체 응답건수 대비 비중을 보면 공동연구(32.4%)와 정부과제 참여(19%) 및 연구회 활동(18.5%)이 가장 주된 협력형태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표준화 협력(8.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기술경쟁력 주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준설정 협력이 부진

한국 진출 글로벌 R&D센터의 협력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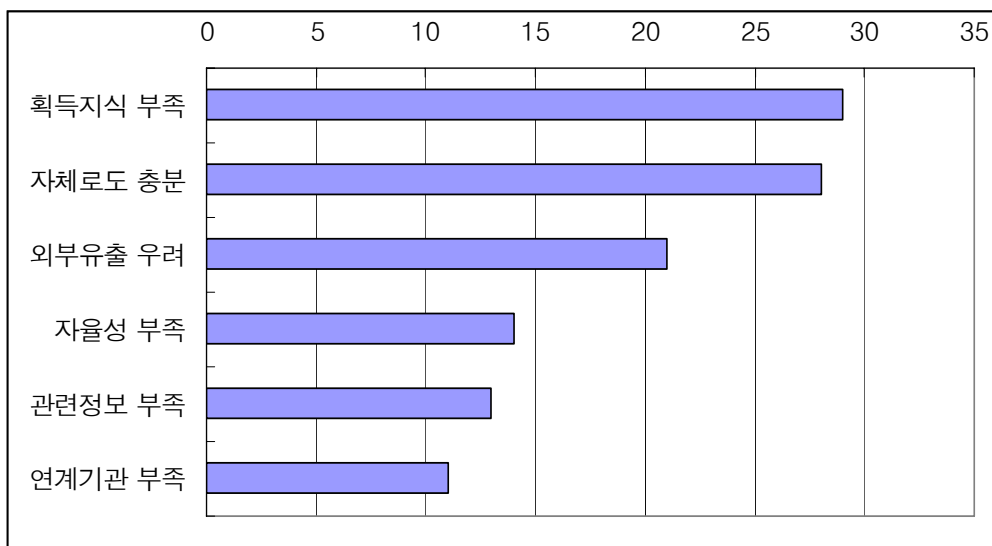
협력 형태	공동 연구개발	연구 위탁	정부과제 참여	표준화	연구회 활동	기타
비중	32.4	12.7	19.0	8.2	18.5	9.2

주: 각각의 협력 형태의 활용 여부에 대한 복수 응답의 전체 건수 대비 비중

연계·협력의 부진 이유

- 연계·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글로벌 R&D센터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
 - 이어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가 두 번째로 많아 글로벌 R&D센터들은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기업·기관과의 협력부진 이유



주: 복수 응답건수

-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기관들의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연계·협력 부족의 또 다른 원인
 -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연계나 협력을 통한 지식습득보다 지식유출이 우려되고 자체 수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식

한국 기업·기관에 대한 경쟁력 평가

대학	수요기업	공급기업	다른 한국 기업	공공연구소
2.39	2.95	2.76	2.54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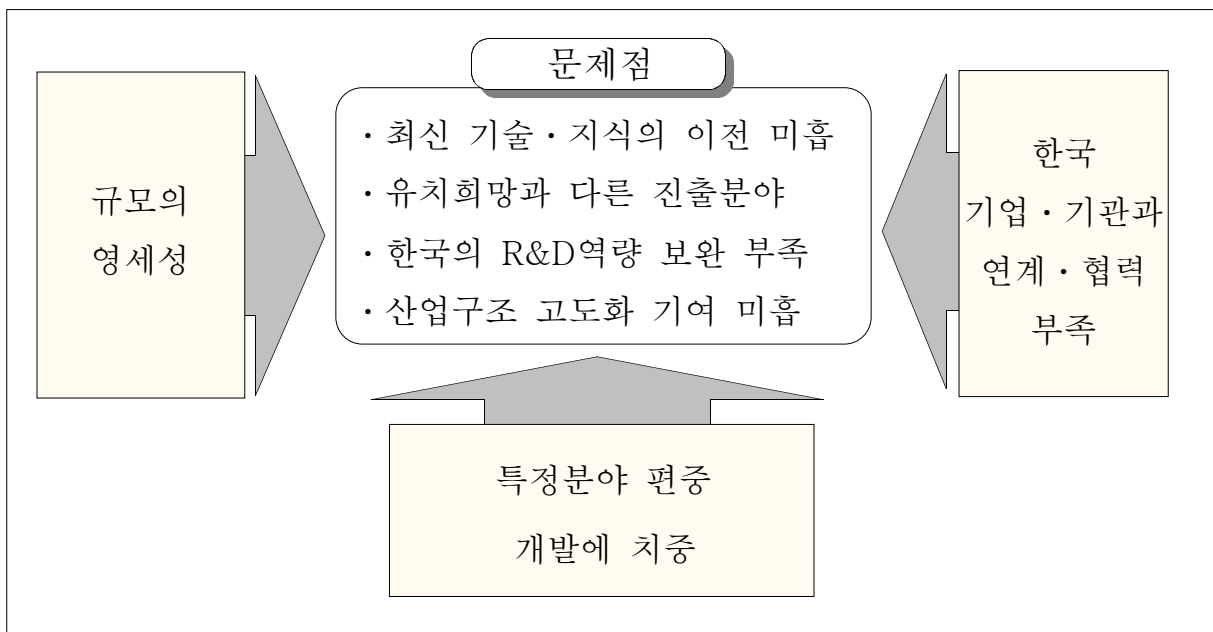
주 1: 글로벌 R&D센터의 본사 연구소와 본국 수준 대비 상대평가
 2: 5점 척도로서 1(낮음) - 3(비슷) - 5(높음)

Ⅲ. 평가와 유형별 전략

1. 글로벌 R&D센터 유치·활용의 문제점

- 양적으로는 상당한 수의 글로벌 R&D센터 유치실적을 올렸으나, 한국의 혁신능력 보강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미친 과급효과는 미미
 - 최근까지 한국은 중국(750개)보다 많은 900여건에 가까운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
 - 그러나 유치한 글로벌 R&D센터의 규모가 영세하고 한국의 유치희망 분야와 거리가 있는 일부 분야에 편중
 -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제 R&D 성격도 연구보다 개발에 치중
 - 한국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계·협력이 적어 최신 기술과 지식이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미미

글로벌 R&D센터 유치·활용의 문제점



2. 대응전략

기본방향: 산탄총에서 조준사격으로

- 산탄총방식의 量的 유치에서 조준사격방식의 質的 유치·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무조건 많은 수의 R&D센터 유치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
 - 유치 센터가 많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발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치국의 인력과 기술이 유출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R&D센터를 선별하여 유치·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글로벌 핵심연구소(Center of Excellence, CoE)가 대상¹¹⁾
- 대상으로 선정한 글로벌 R&D센터의 진출 誘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는 'Search and Invite' 전략이 필요
 - 대기업의 수요와 한국의 우수 인력자원 및 테스트베드 기능 등을 지렛대로 활용
 - 유치와 동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활용전략을 수립
 - 유치단계부터 국내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계·협력을 고려
 - 민·관·학·연 합동의 유치 및 활용 전략 수립
 - 현재 관 주도로 펼치고 있는 유치전략수립에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시켜 유치와 활용 효과 배가

¹¹⁾ 국내에서는 GM그룹의 글로벌 소형승용차 개발기지로 선정된 GM대우, 볼보그룹의 건설장비(굴삭기) 개발·생산기지로 선정된 볼보코리아 등이 글로벌 핵심연구소(CoE)의 대표적 사례

세부전략: 맞춤형 유치·활용 전략수립

- 한국의 기술수준과 세계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분야를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유치·활용 전략을 수립
- 기술수준과 세계시장 점유율에 따라 한국의 희망유치분야와 활용 정도가 다르고 글로벌 기업의 진출 유인이 다름
 - 한국의 유치목적과 글로벌 기업의 진출유인이 합치되어야 유치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극대화

글로벌 R&D센터의 맞춤형 유치·활용 전략

기술 수준	고	(IV그룹: 내수위주 산업)	I 그룹: 반도체, LCD 등 → 活用 중점
	저	Ⅲ그룹: 바이오, 제약 등 → 誘致 우선 (파격적인 조건 제공)	Ⅱ그룹: 자동차, 기계 등 → 세계 수준 연구소의 誘致·活用
		저	고
		세계시장 점유율	

- ① < I 그룹 >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¹²⁾을 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하는 분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중심의 전략이 필요
- ② < II 그룹 >은 소규모 개발중심의 글로벌 센터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센터를 유치·활용하는 전략이 모두 필요
- ③ < III 그룹 >은 국내 기반이 미약하고 글로벌 기업의 진출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
- ④ < IV 그룹 >은 내수위주산업으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유인이 적은 분야
· R&D센터의 유치·활용과 관련이 적은 분야로, 이하의 논의에서 배제

¹²⁾ 대기업의 부품·소재 수요를 의미

① I 그룹: 활용전략에 중점


□ 유치보다 활용 전략을 중점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이 기술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유치혜택을 주지 않아도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집적¹³⁾

반도체 · LCD 부품클러스터

▷ 2003년 이후 평택 일대의 5개 외국인 단지에는 알박(ULVAC), 호야(HOYA) 등 50여 개의 반도체와 LCD 부품 · 장비 관련 해외 업체들이 입주

▷ 이들은 최대고객인 삼성전자(기흥, 탕정)와 LG필립스LCD(파주)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접 지역에 밀집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조선일보 2005.11.21)

- 유치촉진전략을 사용할 경우, 금융·세제 혜택보다 한국의 기술력 강화와 규제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연구인력 양성 등이 필요

□ 한국 기업과 기관들이 글로벌 R&D센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촉진정책이 필요

-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과 대학·연구소의 지원 프로젝트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글로벌 R&D센터의 참여를 확대
- 국내 기업과 기관 및 글로벌 R&D센터가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켜주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마련
 -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기관들이 글로벌 R&D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¹³⁾ 관련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얼굴을 맞댄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

② II그룹: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센터 유치·활용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력과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글로벌 핵심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치·활용 전략이 모두 필요
 - 현재 II그룹에 진출한 글로벌 R&D센터들은 전형적인 부품·소재 지원형 연구소로 규모가 작고 현지시장용 개발에 치중
 -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개발거점을 유치·활용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

세계시장용 굴삭기 개발·생산 거점 볼보건설기계코리아

- ▷ 스웨덴의 볼보건설기계는 1998년 삼성중공업 창원공장을 인수하면서 세계 굴삭기 사업본부를 한국으로 이전
 - 스웨덴에 소재하던 에슬뢰브의 굴삭기 공장은 폐쇄
 - 재무구조 개선과 R&D센터 투자를 위해 9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
- ▷ 현재 한국지사는 전체 생산량의 70%이상을 해외로 수출
 - 한국지사의 그룹매출비중도 2000년 15%에서 2006년 25%로 증가 예상

- 세계적인 세트(set)업체의 동북아 개발거점을 유치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활용의 유인으로 사용
 - 세계적인 수준의 세트업체들을 유치하면 관련 글로벌 R&D센터들이 따라서 집적
 - 중국은 산업과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일본은 비용이 많이 들며, 대만은 테스트 베드기능이 부족하여 한국이 최적지임을 홍보
 -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차세대 연구개발사업에 글로벌 R&D센터의 참여를 확대

③ Ⅲ그룹: 유치 우선 정책

-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한 Ⅲ그룹에서는 파격적인 유치조건을 제시하여 부족한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
 - 한국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소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필요한 해외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
 -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이동통신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간에 국내 산업기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신생벤처 쉐컴과의 제휴로 급성장한 한국이동통신산업

- ▷ 쉐컴은 199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설립 6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벤처기업
 - 당시 쉐컴은 원천기술이 있었으나, 자금력과 상용화 관련 기술은 부족
- ▷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쉐컴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국 이동통신산업도 한 단계 도약

-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財源이 많지 않으므로 전략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중점분야를 선정
- 국제적인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
 - 진출유인과 관련이 없는 비영리 우수연구소와 국제기구의 R&D 프로그램 등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설정
 - 국제백신연구소, 아태이론물리연구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3. 14.	3. 15.	3. 16.	3. 17.	3. 20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77.0	974.8	975.0	971.2	967.1
	엔/달러(뉴욕시장)	118.63	117.58	117.45	116.95	116.05
금리	회사채(3년AA-, %)	5.31	5.28	5.30	5.26	5.27
	국고채(3년, %)	4.91	4.88	4.91	4.89	4.90
주가지수(KOSPI, 종가)	1,326.3	1,333.98	1,335.98	1,341.12	1,346.69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10월	11월	12월	2006.1월	2월
GDP성장률 ¹⁾	4.6	4.0	..	5.2
민간소비	-0.5	3.2	..	4.6
설비투자	3.8	5.1	..	9.8
산업생산	10.2	6.3	8.0	11.8	11.3	6.4	..
평균가동률	80.4	79.8	79.0	82.1	79.4	83.6	..
실업률	3.7	3.7	3.6	3.3	3.5	3.7	4.1
실업자(만명)	86.0	88.7	87.0	78.5	82.7	86.9	95.3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6	0.03	0.02	0.02	0.02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7	2.5	2.4	2.6	2.8	2.3
수출(억달러, FOB) ²⁾	2,538.5	2,844.2	253.5	258.3	256.3	232.7	238.3
(증감률)	(31.0)	(12.0)	(11.9)	(11.9)	(10.5)	(3.6)	(16.8)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26.5	238.5	241.9	228.2	234.1
(증감률)	(25.5)	(16.4)	(11.0)	(17.4)	(15.4)	(17.3)	(27.2)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26.9	22.0	5.4	1.4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073.1	2,082.3	2,103.9	2,169.3	2,159.5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723	1,900	..	1,900

1) 2005년 11월 수치는 2005년 4/4분기 자료.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 작성.